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9. 29.(화)

## 한국수자원공사, 동티모르와 온실가스 감축 및 물관리 협력 시동

-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 높은 동티모르와 태양광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협력
-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담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 및 ODA 연계 지원 방안 모색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Francisco Kalbuady Lay) 동티모르 부총리 겸 관광환경부 장관과 ‘동티모르 신규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협약에 앞서 진행된 면담을 통해 동티모르에서 진행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자원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동티모르 수도인 딜리(Dili) 지역 태양광 연계 담수화 시설 긴급 복구와 현지 공무원 대상 수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며 동티모르와 협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동티모르 현지의 청정에너지 전환 여건을 확인하고 물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도서 국가인 동티모르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 경유와 중유(HFO)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딜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바우카우(Baucau)시 일원

을 대상으로 30MW 규모 육상태양광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태양광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유·무상 원조(EDCF·ODA) 자금과 연계한 현지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및 수자원 관리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파리협약체계(PACM)\*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ITMO) 확보 가능성과 현지 전력 계통 연계성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을 도출해 향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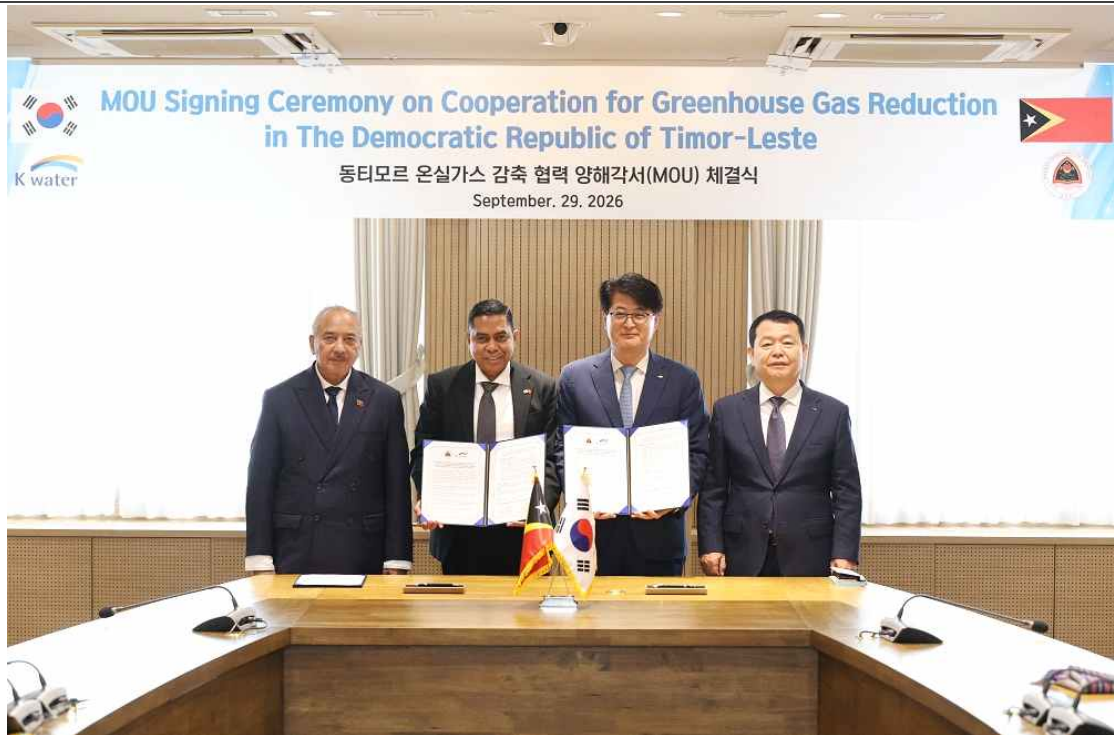
\* 파리협약체계(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동티모르와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의 길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글로벌 기후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       |                      |     |     |                    |
|-------|----------------------|-----|-----|--------------------|
| 담당 부서 | 기후협력개발처<br>온실가스감축사업부 | 책임자 | 부 장 | 정창희 (042-629-4141) |
|       |                      | 담당자 | 차 장 | 김수영 (042-629-4142) |





[사진] 1. 9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 번째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 왼쪽 첫 번째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Francisco Kalbuady Lay) 동티모르 부총리 겸 관광환경부 장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동티모르 관광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2.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9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Francisco Kalbuady Lay) 동티모르 부총리 겸 관광환경부 장관(사진 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 동티모르 부총리 겸 관광환경부 장관과 수자원 분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